

문의: 02-2004-8234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희상 스님 크기: 30.5 x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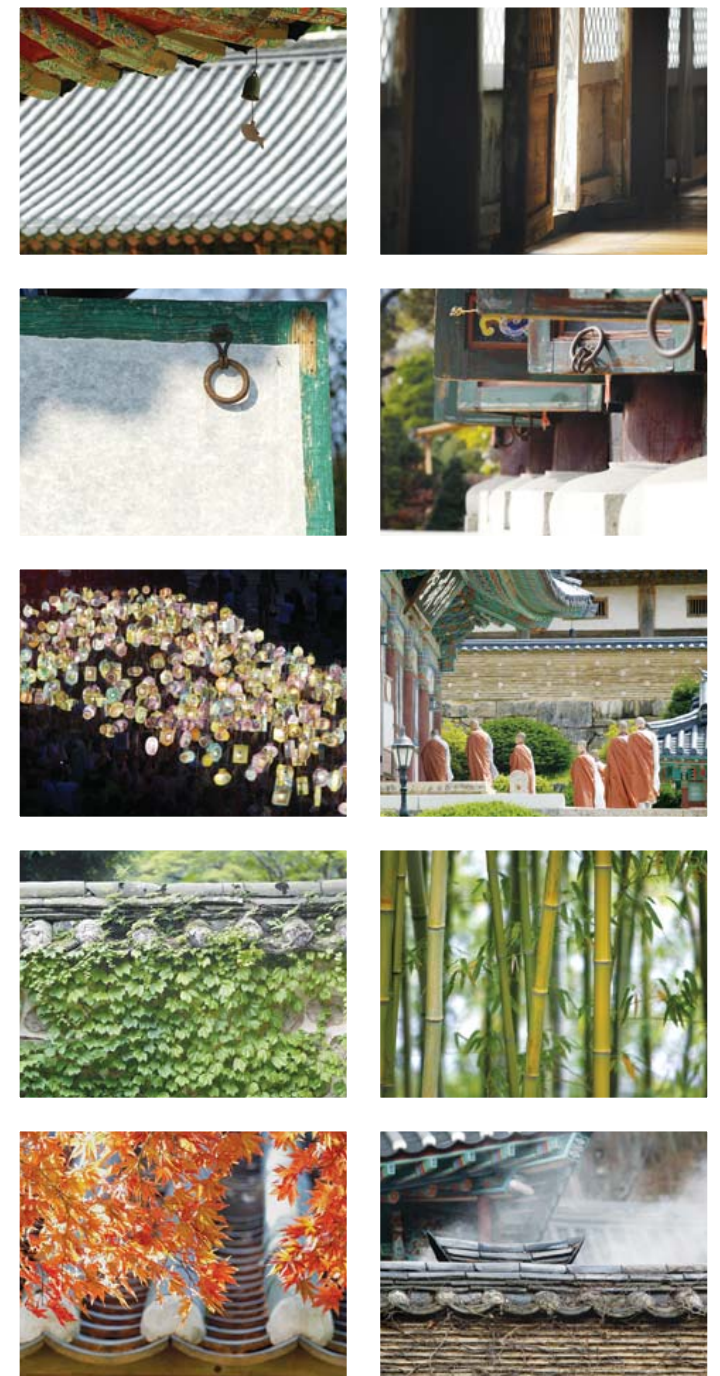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2008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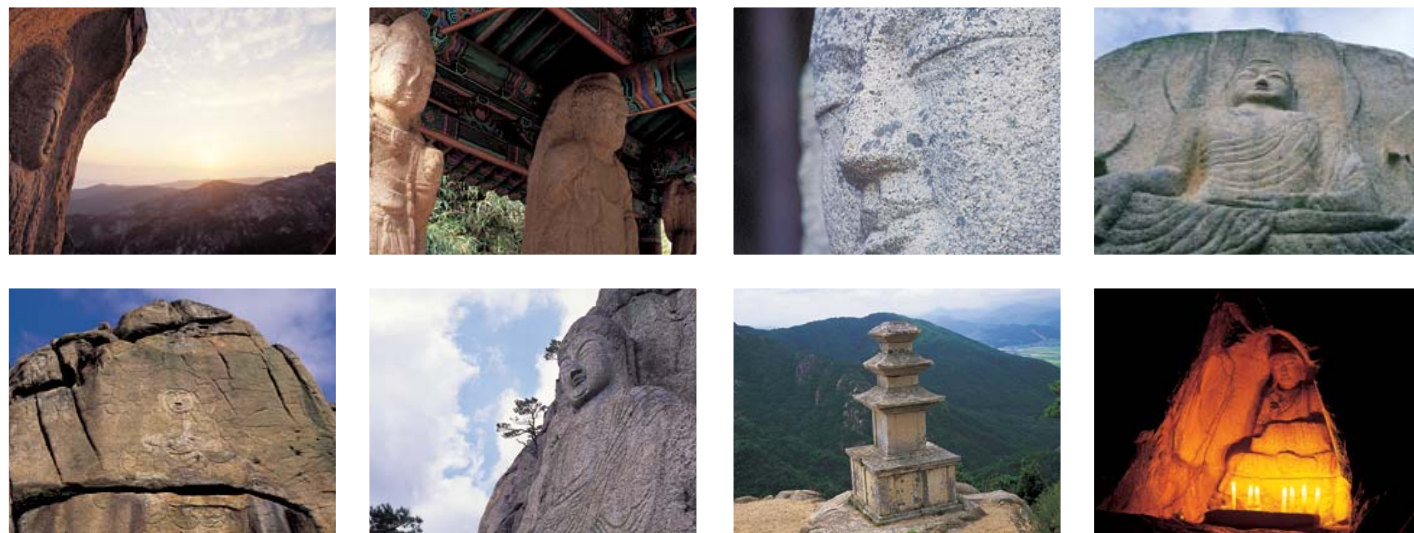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절의 미학 사진: 박재완 기자 크기: 26.5 x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고영배 기자 크기: 26.5 x 26.5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破子庵)의 두 공인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립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최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체음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공경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명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후위가 탁척았다. 그제서야 변칙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능허(能虛)가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정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 법문 중에서

- 분문 중에서